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AMD, 스페이스 X 약세 속 차익실현 물량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5일(수) 미국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감, 서버 수요 개선 전망에 따른 엔비디아(+3.4%) 강세 등 상방 요인이 상존했음에도, AMD(-7.0%, 기대치 하회 실적 등), 스페이스X(-13.6%, 실적 부진, 6일 보호예수물량 해제 등)의 주가 약세,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AI, 반도체주 차익실현 여파로 혼조세 마감(다우 +0.5%, S&P500 -0.1%, 나스닥 -0.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은 MS, 아마존, 팔란티어 호실적을 통해 AI 수요 호조 및 투자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했던 상황. 그러나 이후 증시 급등(+지수 신고가)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일에는 AI, 반도체 등 주도주들의 단기 차익실현 압력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임.

유가 및 금리 급등세 진정, 2분기 S&P500 실적 모멘텀(YoY 분기 EPS 성장률 +47.4% vs 5년 평균 +15.2%) 등 매크로 및 펀더멘털상 증시 환경자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추후 미국,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 받게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추가 조정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AMD의 시간외 주가 급락에도, 유가 및 금리 하락세 지속,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 속 주요기업들의 2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회복, 외국인 순매수 등에 힘입어 급등 마감(코스피 +3.8%, 코스닥 +2.4%).

금일에는 지정학, 매크로 여건 호전에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최근 단기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등으로 지수 상승 탄력은 정체된 채, 업종 순환매 성격의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전망.

장 마감 후 발표한 샌디스크(-5.3%) 실적도 주목할 부분. 분기 매출액(89.7억달러 vs 컨센 86.0억달러, 매출총이익률(84.6% vs 컨센 81.5%) 서프라이즈, LTA 5건 추가 체결, 2027년까지 공급 부족, 주주환원 일관성 유지 등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 다만, 차분기 매출액 가이드(103억~108억달러 vs 컨센 111억달러)의 기대치 소폭 하회로 시간외에서 5%대 약세를 기록 중이라는 점은, 금일에 한정해 일시적인 국내 반도체주 차익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한편, 8월 들어 코스피의 고가와 저가간 장중 변동폭이 크게 낮아지는 등 7월보다 변동성이 진정되고 있는 상태. 코스피의 지난 7월 중 일평균 장중 변동폭(고가-저가/시가)은 7.1%로 1990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음. 금융위기 당시인 08년 10월(6.0%), 외환위기 당시인 97년 12월(5.4%) 등 대형 위기 수준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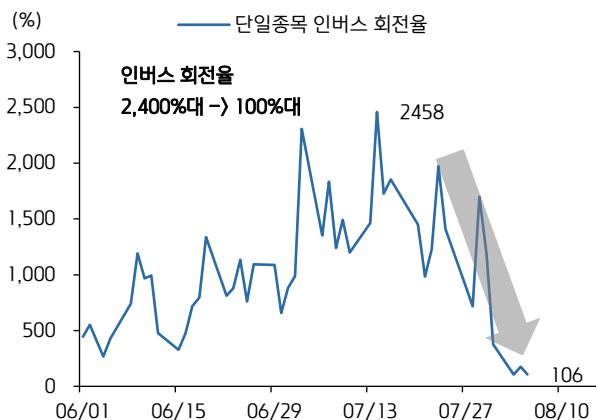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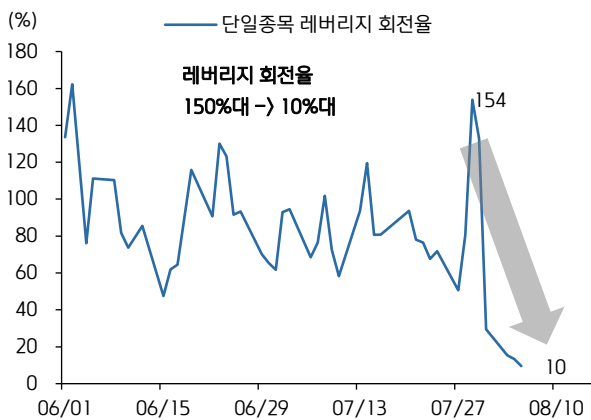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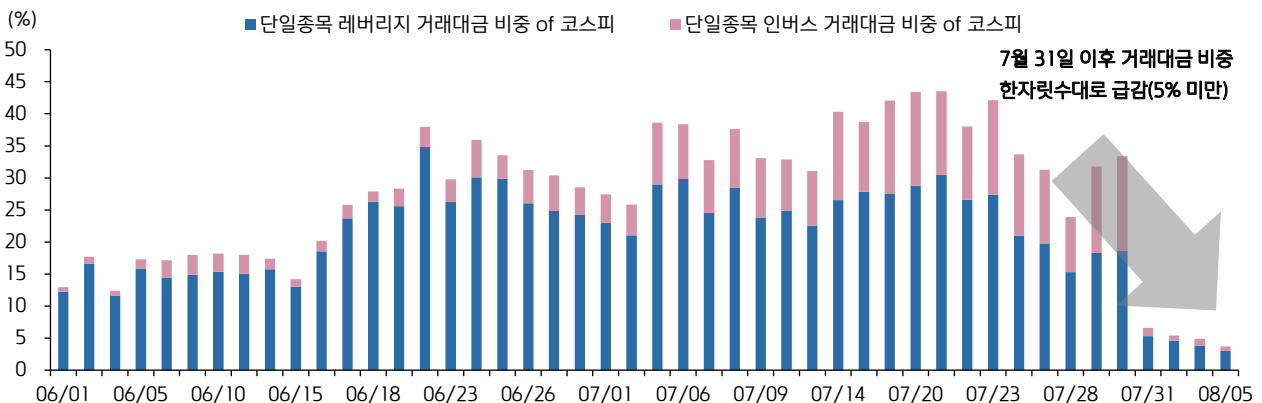
하지만 8월 이후 3거래일간 일평균 등락률은 3.2%로 7월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됐으며, 상반기 평균 수준의 변동성(1~6월 월간 평균 장중 등락률 3.3%)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주가 및 밸류에이션 상 과매도 인식이 유효하다 보니, 장중 급락이 나오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단을 방어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증시의 하방 지지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물론 아직까지 변동성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 옵션시장에서 책정되는 미래의 예상 변동성 지표인 VKOSPI가 78.6pt로 고점(6월 29일, 96.9pt) 대비 낮아졌으나, 여전히 역사적 평균(20pt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 따라서, 당분간 변동성 확대의 여진은 있겠지만, 7월 폭락장에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변동성 증폭 현상은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는 게 적절. 2분기 실적 시즌을 치르면서 AI 투자 및 메모리 수요 불안이 완화되고 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

8월 이후 3거래일간 누적수익률 관점에서 코스피와 코스피200은 각각 +0.4%, -0.8%에 그친 반면, 코스피200 동일가중지수와 코스닥은 각각 +4.7%, +11.1%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 지난 상반기 급락 기간 이후 반등장 당시 반도체 대형주가 독주했던 것과 달리, 상승의 온기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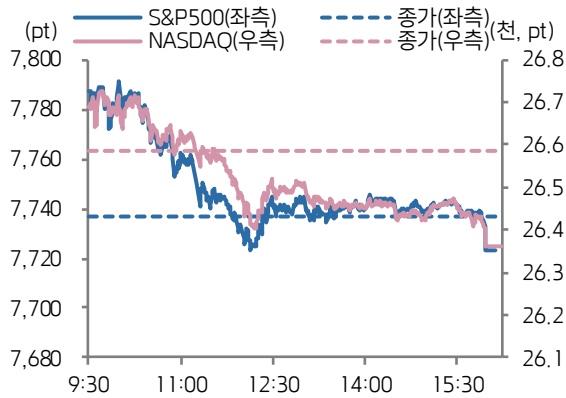
이처럼 비정상적인 변동성의 정상화 단계 돌입, 낙폭 과대 업종들의 주가 되돌림 여력 등 기술적인 상방 재료들도 존재하는 구간임. “반등 시 매도”보다는 “기존 비중 유지” 혹은 “추가 조정 시 반도체, MLCC, 증권, 유통, 방산 등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 중심의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비중, 회전을 변화: 레버리지 규제안, 증시 반등 과정에서 업종 상승 온기 확산 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영향력 축소 중. 향후 주도주 반도체주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이전과 같은 극심한 쏠림현상, 수급 왜곡 가능성 낮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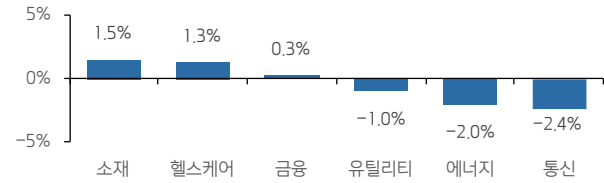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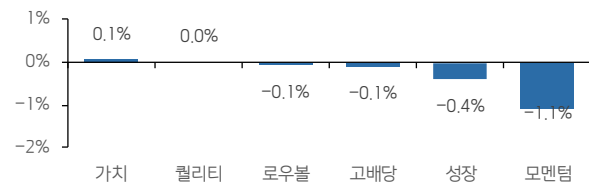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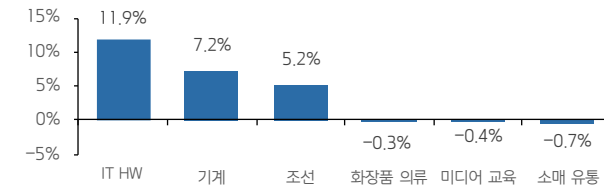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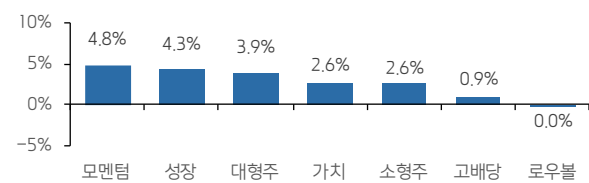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11.00	+0.52%	+14.4%	GM	89.16	+0.96%	+9.64%
마이크로소프트	487.46	-1.09%	+0.79%	일라이릴리	1,169.86	+4.86%	+8.86%
알파벳	362.43	-4.03%	+15.79%	월마트	112.34	+0.71%	+0.83%
메타	588.77	+0.14%	-10.8%	JP모건	359.24	+0.48%	+11.49%
아마존	272.65	-1.72%	+18.12%	엑손모빌	151.63	-1.51%	+26%
테슬라	321.55	-1.77%	-28.5%	세브론	186.41	-2.1%	+22.31%
엔비디아	219.22	+3.43%	+17.54%	제너럴일렉트릭	112.34	+0.7%	+0.8%
브로드컴	418.28	+0.03%	+20.86%	캐터필러	871.08	-0.62%	+52.06%
AMD	482.05	-7.04%	+125.09%	보잉	240.19	+1.28%	+10.63%
마이크론	893.19	+0.06%	+212.95%	넥스트에라	85.91	-1.5%	+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598.26	+3.76%	+56.57%	USD/KRW	1,423.75	-0.46%	-1.09%
코스피200	1,038.59	+3.86%	+71.39%	달러 지수	99.69	-0.17%	+1.39%
코스닥	799.59	+2.42%	-13.6%	EUR/USD	1.16	+0.19%	-1.64%
코스닥150	1,361.75	+1.71%	-11.99%	USD/CNH	6.75	+0%	-3.26%
S&P500	7,723.55	-0.17%	+12.83%	USD/JPY	157.75	+0%	+0.66%
NASDAQ	26,363.44	-0.83%	+13.43%	채권시장			
다우	54,349.12	+0.49%	+13.08%	지수	가격	DTD(bp)	YTD(bp)
VIX	15.81	-4.18%	+5.75%	국고채 3년	3.677	-6.3bp	+72.6bp
러셀2000	3,019.19	-0.59%	+21.65%	국고채 10년	4.155	-10bp	+77bp
필라. 반도체	12,008.88	-1.4%	+69.54%	미국 국채 2년	4.181	-1.1bp	+70.8bp
다우 운송	21,577.33	-0.93%	+24.31%	미국 국채 10년	4.613	+0bp	+44.6bp
상해종합	3,878.43	+1.47%	-2.28%	미국 국채 30년	5.168	-0.6bp	+32.4bp
항생 H	8,603.73	+0.34%	-3.48%	독일 국채 10년	3.111	+0.4bp	+25.6bp
인도 SENSEX	78,581.00	+0.19%	-7.79%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WTI	75.22	-0.73%	+31.94%
Eurostoxx50	6,476.98	-0.15%	+11.84%	브렌트유	79.45	+0.11%	+30.57%
MSCI 전세계 지수	1,149.54	+0.34%	+13.3%	금	4,305.20	+3.67%	-4.27%
MSCI DM 지수	4,982.03	+0.1%	+12.45%	은	62.29	+3.39%	-11.78%
MSCI EM 지수	1,687.03	+2.17%	+20.13%	구리	672.75	+1.26%	+18.4%
MSCI 한국 ETF	169.14	-1.17%	+73.98%	BDI	2,936.00	+3.27%	+56.42%
디지털화폐				옥수수	460.00	-1.18%	-0.11%
지수	가격	DTD(%)	YTD(%)	밀	642.25	+0.59%	+17.68%
비트코인	64,786.23	+0.76%	-26.08%	대두	1,174.75	-0.25%	+10.36%
이더리움	1,915.77	+2.15%	-35.66%	커피	311.45	+0.86%	-0.9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